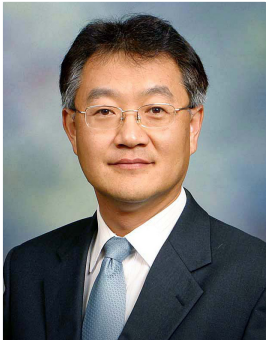


전문가 칼럼

한 점 부끄럼 없는 투명경영을 위하여



이 영 민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장

과거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지난 2010년 11월 ISO26000 국제표준이 발표되면서 필자는 향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업들이 “그게 뭐지”라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런 속도로 나아가다가는 100년이 지나도 기업이나 조직의 사회적 책임이 경영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 더딜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기업의 생존에 사회적 책임이 별로 필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 당위론적으로, 기업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지속가능한 경영이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훨씬 더 많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더 많은 이윤을 만들어낸다고 하지만, 사실 더 많은 이윤을 만들어 내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 활동에 더 적극적인 경우가 많다.

매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기업의 활동은 참으로 말도 안되는 이야기들이 많다. 작게는 한 방송사의 착한 먹거리 찾거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은 믿기 어려운 내용들로 가득차 있다. 크게는 글로벌 의류기업의 믿기 어려운 생산공장 실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등 안좋은 이야기들뿐이다. 다수의 한국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사회봉사활동으로 대체하려고 한다. 기업은 하도급과 비정규직 문제로 복잡하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는 아낌없이 기부한다. 그룹 총수나 기업의 회장님이 잘못하면 갑자기 TV와 신문에는

해당 그룹과 기업의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광고가 가득 찬다.

여기서 우리는 말하기 어려운 불편함을 느낀다. 한편으로 그룹이나 기업은 총수이든, 회장이든, 개인적인 삶과 기업의 활동을 분리시키려고 한다. 개인적으로 엄청난 부를 누리지만, 개인적으로 기부하기보다는 회사가 기부하도록 한다. 그래야 세금도 아끼고 회사의 브랜드 가치도 제고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총수나 회장님이 문제가 생기면 그룹이나 기업의 착한 브랜드를 통해 사회적으로 용서를 받으려고 한다. 그동안 우리가 용서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건강하던 회장님이 잘못을 하면, 갑자기 초췌해진 모습으로 휠체어를 타거나 심지어는 병원침대에 누워서 법정으로 간다. 그러나 법정 공방이 끝나면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모습이 TV에 나온다.

기업의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경영하는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를 기대하는 것,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없는데 그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를 기대하는 것, 회장님이 투명하지 않은데 기업이 투명하기를 바라는 것 모두 어불성설이다. 많은 기업과 조직은 작금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를 유행으로 인식한다. 사실 글로벌 기업이나 조직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책임을 유행으로 인식하는 한, 지속가능한 경영은 보장받을 수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 자신을 둘러보고, 이를 사회적 책임의 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과 조직이 서로 다르게 움직여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은 불가능할 것이다.



최근 국내외 동향

:: 국내 윤리경영 동향

"차입금 많은 기업 공시의무화"

금융감독원이 시장성 차입금 과다 기업 공시 방안을 마련하고 독자 신용등급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동양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주채무 계열로 지정돼 있지 않더라도 시장성 차입금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집단에 대해 이를 공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금감원은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임원 개인별 보수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비상장 회사의 주식 직접 공모 발행과 해외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대한 심사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경련, 기업윤리 딜레마 지침 제시

전경련이 기업윤리 딜레마를 상황별로 다루며 이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 '궁금할 때 펴보는 기업윤리 Q&A 217'을 발간했다. 이 책은 다양한 기업윤리 이슈 가운데 ▲근무기강, 비윤리적 언행, 정보 보안 등 '사내윤리' ▲경조사, 선물·뇌물 수수, 향응·접대 등 '협력사와의 윤리' ▲글로벌 윤리규범, 외부강연, 내부신고 등 '이해관계자와의 윤리' 파트로 나뉘어져 있으며, 사내외 기업윤리 문제를 실제 상황으로 접근하는 한편, 현재 추세를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 지속가능성 최고점 8% 불과

에코프론티어(EFC)가 국내 525개 상장기업에 대한 2013년 하반기 기업 지속가능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산업 내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은 곳은 41곳(8%)으로 조사됐다. 사회 부문에서는 일부 대기업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등 시장의 건전성 및 소비자 가치의 훼손을 야기할 수 있는 요소들을 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였고, 금융 분야의 경우 실질적으로 지속가능경영 실현을 도모할 수 있는 지배구조 체계 확립과 금융기관 자체의 내부 모니터링시스템 강화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해외 윤리경영 동향

유럽연합 반부패 보고서 "일상에서 부패 만연"

유럽연합에서 한 해 부패에 따른 손실 규모가 1,200억 유로(약 176

조원)로 조사됐다.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가 2월 3일 '유럽연합 반부패 보고서'에서 부패를 유럽연합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 과제의 하나라고 진단하였고, 28개 회원국 국민 약 2만7,700여명을 대상으로 부패 인식 정도를 조사한 결과 유럽인의 76%가



유럽 국가별 일상생활에서 부패를 느끼는 정도

부패가 만연하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99%), 스페인(95%), 포르투갈(90%)에서 이 같은 인식이 강한 반면, 덴마크(75%)를 비롯해 스웨덴(54%), 핀란드(64%) 시민들은 자국에서 부패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자발적 상생으로 변화하는 패러다임

세계 최대 소비재 유통기업인 유니레버가 2020년까지 협력사를 전면 재편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자체 개발한 친환경 인증 시스템(그린팜)에 부합하지 않는 협력사를 단계별로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비단 유니레버뿐만이 아니다. 자연 파괴의 주범으로 손가락질 받던 일부 기업들은 10여 년에 걸쳐 '친환경 생산 시스템'을 만들었고, 공장 노동자들의 인권을 짓밟았다는 비판을 받던 글로벌 의류회사들은 스스로 공장 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다.

'분쟁광물', 글로벌 기업윤리 쟁점으로 부상

글로벌 가전제품업체들 사이에서 '분쟁광물' 사용 여부가 기업 윤리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분쟁광물이란 분쟁 지역이나 인권 탄압 시비가 일고 있는 지역에서 무장 단체의 자금원으로 생산되는 광물을 말한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규제 대상인 미국 상장기업과 미국에 상장한 외국 기업들에 대해 오는 5월 말까지 분쟁광물 사용 여부를 보고하도록 했다. 휴대전화 제조업체 노키아는 이미 2년 전 분쟁광물과 관련한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하였고, 반도체 제조사 인텔도 올해 생산되는 모든 마이크로프로세서에 분쟁광물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행동
브리핑

나비스 미래 주역들의 준법·윤리경영을 위한 교육

한국지멘스와 전경련 국제경영원은 (사)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과 함께 2월 13일 나비스(Northeast Asia Business Integrity School, 동북아 기업윤리학교) 3기 졸업식 및 CEO 포럼을 진행했다. 나비스는 기업의 준법·윤리경영 기업 담당자가 대학생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독일 지멘스 본사가 지원하는 전세계 31개 글로벌 부패근절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이다. 한국남부발전은 기동감찰팀 운영 등을 통한 조직의 청렴문화 확산 노력을 강조하였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계약심사 투명성 강화, 전관예우 근절 등 32개 과제 시행을 소개하였다. 나비스 참가 학생들은 "나비스를 통해 기업이 오래 전부터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윤리경영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는 있으나 기업의 업종이나 내부와 외부 환경에

따라 대처가 다른 것을 알게 되었다"라며 소감을 남겼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의 활동을 종합하여 7개 기업 준법·윤리경영 사례를 담은 '한국의 윤리경영'이라는 책을 출간하였으며, 이 단행본에는 국내 기업의 윤리경영 우수사례와 함께 바람직한 한국형 모델이 제시되어 있어 앞으로 윤리경영 연구 및 교육에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업종별 윤리경영 사례

조선업분야에서 세계 10위권 내 기업이 6개나 되는 국내 조선 업체들은 세계적으로 부러움을 사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비윤리적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번 호 기업윤리 브리프스에서는 조선업의 윤리경영 긍정적사례와 부정적사례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기업이 윤리경영을 실천하는데 있어 교훈을 삼고자 한다

윤리경영 강조 무색하게 만든 조선업계 불공정 하도급

최근 조선업계에는 납품 비리, 부당 대출 등의 각종 비리 사건이 터지고 있다. 지난해 조선업계 대기업들이 이룩한 성과는 높았지만 납품 비리와 금품 수수 혐의가 터져 나오면서 주춤 성과 역시 빛이 바랬다.

사례 '갑'의 위치를 이용한 대규모 납품 비리 사건

한 조선 회사의 전 임원이 협력업체와 납품업체로부터 계약 편의를 봐주고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수많은 협력업체와 납품, 하청 관계를 맺고 있는 업계의 특성상 조선업은 납품 비리 등 윤리적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조선사는 경쟁 입찰을 거친 수백여 개의 협력업체로부터 부품을 납품 받는데, 이 과정에서 비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끊이지 않는 인사청탁 의혹

세계 조선업을 이끌고 있는 한국 조선업의 탁월한 경쟁력은 우수한 인력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현재 조선업계의 일부 기업들은 외부 입김에 작용되어 직원들을 채용하고 있다.

사례 5,000만 원은 있어야 대형 조선소에 취직할 수 있다?

국내 대형 조선소의 전 인사담당 직원이 취업희망자로부터 직영 생산직 채용을 미끼로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 이 직원은 조선소 기술교육원 평가 우수자가 성적이 제일 낮은 훈련생에게 밀리게 하는 등의 실무서류를 조작했다. 조선소 직영 생산직은 급여 수준이 비교적 높고 정년까지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이기 때문에 돈을 매개로 한 인사청탁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반면, 많은 국내 조선업체는 미래의 조선업계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들은 우수한 인력을 얻게 되어 보다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사례 조선업계를 이끌어 나갈 인력 양성 노력

대우조선해양은 '우수 고졸 예정자 정규직 채용 및 육성프로그램'이라는 혁신적인 채용계획을 발표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우수인재를 회사가 직접 중공업 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해 중공업 사관학교를 설립하였다. 중공업 사관학교는 고졸자를 채용한 뒤 2년간 이론과 실무를 교육하는 사관학교 형식으로 운영되며, 이후 이들은 설계와 생산관리 관련 사무 직군 전 분야에 고루 배치된다.



안전마저 위협하는 조선소 하청 노동자의 인권

우리나라의 대부분 노동자는 비교적 가벼운 업무상 부상을 당했을 경우, 사업주의 눈치를 보느라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한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비롯한 노동자의 인권을 책임질 수 있는 노동 환경을 만들고 사고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해야 하는 의무는 조선업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례 중소 조선소 임금체불 · 산업재해 은폐 심각

중소 조선소와 협력업체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임금 체불과 산업재해 은폐 여부를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5.6%가 임금 체불 경험이 있었으며, 단단계 하도급 구조 탓에 하청구조로 갈수록 임금 체불도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노동자들의 치료방법은 공상처리가 52.5%로 가장 많았고 산재처리는 24%에 불과했으며, 개인 돈으로 치료한 사례도 12%에 달했다. 원청업체의 압력과 해고 등 불이익 우려를 이유로 산재 처리를 하지 못한 것이다.

윤리경영 스터디

'애플은 얼마나 공정한가'

- 세계 50개 기업에 대한 윤리 보고서 -

'애플은 얼마나 공정한가(저자 프랑크 비베)'에서 다룬 '세계 50개 기업에 대한 윤리 보고서'에 대해 알아보고, 보고서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소개하여 기업들이 당면한 다양한 윤리적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보고서가 선정한 윤리적인 기업

본 보고서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사회의 발전을 위해 지원하고, 환경친화적인 방법을 사용하며, 윤리적 이슈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았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이츠 재단은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질병과 빈곤 퇴치, 에이즈 치료제 개발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 밖에 새로운 백신 개발과 각종 연구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농업 분야의 발전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막대한 재산으로 사회를 발전시키는 재단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데임의 괴츠 베르너 회장은 1퍼센트의 수익만으로 만족하며, 그 이상의 수익은 모두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고객에게 돌려주겠다고 공언했다.

☞ 4면에서 계속됩니다.

윤리경영 체계 가이드스

기업윤리 브리프스에서는 기업들이 윤리경영을 추진하는데 있어 방향성을 제시하고 윤리경영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윤리경영 가이드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호 윤리경영 가이드스에서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그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구축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건전한 기업지배구조의 필요성

기업의 지배 구조는 기업집단을 이해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다. 한 기업의 지배구조가 곧 그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좋은 지배구조는 기업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부의 분배를 원활히 해 사회 전체의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우수한 지배구조 하에서 이루어지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매출액 증대 또는 비용 감소를 통하여 영업 이익률 향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지배구조의 개선은 기업의 가치를 향상시킨다고 할 수 있다.

건전한 기업지배구조를 위한 구성요소

-기업정보 공개의 확장

자본시장의 제도가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할수록, 기업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가 기업 범죄를 엄격하게 규율 할수록 정보의 비대칭성이 완화된다. 투명한 기업정보의 공개는 기업으로 하여금, 횡령이나 배임의 가능성 및 내부자 거래의 가능성을 줄이고, 또한 이로 인해 감시·감독의 필요성 역시 감소시킨다. 즉, 투명한 기업 정보 공개는 기업의 성과 또한 높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사회 독립성 확보 및 활성화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는 비상임 독립이사를 선임하는 등 이사회의 역할을 독립적인 감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사장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고 내부통제도 미약한 상황에서는 경영감시가 어려워 경영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으며, 이사회가 사내 이사만으로 구성되면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적 경영감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기존 사외이사들이 서로 추천해 연임하는 관행은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므로,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높이려면 외부 사외이사 추천이 활발해져야 한다.

-내부견제와 내부감사 제도 강화

각종 조사에 따르면 내부자 소행에 의한 보안사고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내부통제 기준안 미수립, 내부통제의 비문서화,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정의나 분석 부족,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감사 미수행, 전산운영과 관련된 내부통제 범위 미설정 등 내부통제 시스템의 부재는 내부자 위협을 증가시키는 원인이다. 내부자 보안사고는 조직 내 보안체계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내부자에 의해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더 세밀한 내부통제와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외주 업체를 관리하기 위한 내부통제 프레임 워크 연구와 개발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기업의 내부 견제를 위한 상법개정안이 마련되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출함으로써 법인의 재산과 업무 집행을 감시하는 데 있어 독립성이 강화되어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게 된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가 원하는 인사도 이사로 선출될 가능성을 높여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투표 방식이다. 업무 집행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집행임원제' 또한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내부 견제를 위한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 입법 취지

항목	내용	개정 취지
감사위원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	감사위원은 법인의 재산과 업무 집행을 감시자이므로 독립성을 강화해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주당 의결권을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부여	소액주주가 원하는 인사도 이사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져 소액주주의 권익과 입장을 대변할 수 있음
집행임원제	집행임원제 의무화, 집행 임원과 이사회 의장 겸직 금지	업무 집행과 감독 기능을 분리해 기업 투명성을 높임, 2년 전 도입됐으나 기업 자율에 맡기는 바람에 유명무실해짐

☞ 3면에서 이어집니다.

데엠은 판매 제품이 환경 친화적이라는 사실을 내비치며, 매장에서조차 친환경으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한다. **보다폰**은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발전을 후원하고, 교통편이 좋지 않아 은행에 가기 어려운 개발도상국의 금융 소외 계층을 위해 이동 통신망을 구축하며, 금융 서비스 등을 제공하였다.

보고서가 선정한 비윤리적 기업

본 보고서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하청 업체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한 관리가 부족했고, 제품 생산 과정 등에서 환경을 파괴하는 행동을 저질렀으며, 해당 기업에 제기되는 윤리적 이슈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도이체 방크의 사례는 사업 모델 자체가 문제가 된 경우이다. 도이체 방크는 금융 시장과 원자재 시장에 존재하는 위험을 다른 형태로

바꾸고 새롭게 분류해서 복잡한 금융 상품으로 포장해 시장에 내놓았다. 2008년도 대규모 금융 위기로 인해 미국의 부동산 신용 대출에서 야기된 위험은 전 세계 은행들로 전이되었고, 은행들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시스템을 발명한 투자 은행들은 이런 파국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다. **이케아**의 가구가 원시림을 남벌한 나무들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이케아의 하청 업체에서 안전 대책의 미비로 사망 사고가 발생한 점과 이케아가 직원들에게 극단적인 노동 유연성을 강요하고 불법 감시를 자행했다는 이유 또한 거센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알디**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어떤 설명이나 해명도 분명하게 내놓지 않았다. 지금은 뒤늦게나마 기업의 책임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지만, 구체적인 것은 없고 지금껏 일반적인 내용뿐이다. 알디의 고객은 온갖 광고에 뒤덮여 살지만, 자신들이 구입하는 상품이 어떤 조건에서 생산되는지 알 수 있는 자료는 어디서도 구할 수 없다.

Q 최근 기업의 경영활동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 환경적 이슈를 기업의 윤리 문제에 접목하고 이에 대처하고자 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적 윤리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에 대해 기업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A 사회적으로 식품 산업의 아동 노동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섬유 산업 같은 몇몇 분야에서는 아동 노동을 몰아내는데 뚜렷한 진전이 있었지만, 그 밖의 분야, 특히 초콜릿업체들은 카카오 농장에서 아동 노동을 금지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카카오 농장은 가족이 소유한 경우가 많아 아동 노동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가족 차원이 아니라 아이들을 모집하거나 강제로 끌고 가서 외딴 경작지에 투입하는 일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하청 업체의 노동 조건에 관한 문제입니다. 섬유 산업, 전자 산업 등에서는 상당수 업체가 상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개발도상국에 하청을 주는데, 이런 하청 업체에서 나오는 불만은 대개 노동 시간 초과와 저임금, 허술한 산업 재해 방지책, 협소한 작업장과 관련된 것입니다. 일부 나라에서 정부나 기업들이 노동조합 결성을 방해하는 것 또한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원청 업체는 이러한 문제가 적발된 하청 업체와의 거래를 끊어버리는 등 하청 업체 관리와 감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환경 영역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팜유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팜유 생산을 위한 대농장을 확보하려고 넓은 면적의 원시림을 남벌하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잘려 나가면서 사람과 동물 또한 숲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식품 회사와 화장품 회사가 팜유를 사용합니다. 요즘 기업들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보고서에는 기후 변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명확하게 등장합니다. 거의 모든 산업 부문에서 이산화탄소 결산표를 작성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결산표는 나중에 제품 생산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3월

국내의 행사를 소개합니다!

|| 2014 사회공헌 혁신 포럼

2014년 대한민국의 사회공헌을 전망하고, 기업 사회공헌에 부는 새로운 바람을 소개할 예정

- 주 최 : 라임글로벌
- 일 시 : 2014년 3월 13일(목)
- 장 소 : 서울 역삼동 포스코 P&S 3층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2014 연차총회

2013년의 경제 주요 업무 실적 및 결산과 감사를 보고하고, 2014년 사업계획을 논의할 예정

- 주 최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 일 시 : 2014년 3월 6일(목)
- 장 소 : 서울 수곡로 롯데호텔 사이언스 북루(3층)



|| GLOBE 2014

기업 간부들과 정부의 정책입안자, 환경 산업 간부들과 국제 기관의 대표 등이 참석하여 변화하는 에너지 환경을 살펴보고, 녹색경영과 지속가능경영의 통합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

- 주 최 : 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
- 일 시 : 2014년 3월 26일(수)~28일(금)
- 장 소 : Vancouver Convention Centre, Canada

|| PE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Performance Symposium 2014

지속가능성의 최근 트렌드와 발전 상황을 파악하며 지속가능성 성과 스펙트럼에서 자기기업의 위치를 확인해보고,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다른 기업들의 도전과 해결책 등을 소개할 예정

- 주 최 : PE International
- 일 시 : 2014년 3월 10일(월)~12일(수)
- 장 소 : Stuttgart, Germany

Q

최근 많은 기업들은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회공헌활동, 친환경 정책과 지속가능성 등 윤리적 이슈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기업이 투명경영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이 아닌 것은?

- 1) 기업 영업이익률 증대 2) 기업 지배구조 개선 3) 내부고발자 보호 장치 마련 4) 뇌물 범죄 단속 강화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 **지난 호 정답 : 3번, 윤리경영 비전**

● **정답 제출처(25일 까지) :** 국민권익위원회 기업윤리브리프스 담당자 문옥인(oim2821@korea.kr)

※ 정답과 함께 성함, 연락처, 주소(상품을 받아보실 수 있는 곳)를 적어 보내주시요.

● **지난 호 퀴즈 정답자는 장유미님, 오종수님, 전용덕님, 정창렬님, 한상원님입니다**

※ 보내주신 주소로 상품권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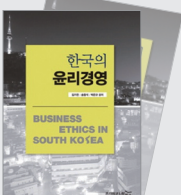
Yes 준비! Ok 윤리!

나는 회사의 얼굴



자료제공 : 교보생명 (그림 안종만)

새로운책 소개



1. 한국의 윤리경영

저 자 : 김기찬, 송창석, 박은규
출 판 : 프리이코노미북스
출판일 : 2014. 2.10
정 가 : 15,000원



2. 착한 리더의 생각

저 자 : 박희도
출 판 : 북생크
출판일 : 2014. 2.10
정 가 : 13,000원



- 본 월간지의 저작권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있습니다.